

# 신문 사설에 나타난 사립학교 관련 주요어 분석

## An Analysis of Keywords related to Private Schools in Newspaper Editorials

박수정  
충남대학교

Soo Jung Park(edupark37@gmail.com)

### 요약

이 연구는 사학 관련 현상을 이해하고 사학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신문 사설에 대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 사설에서 사학은 사립대학과 관련된 이슈가 많고 사립초·중등학교와 사립대학 간에 구별되는 쟁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신문 사설에서 등록금과 재정 지원, 자율형사립고와 같은 새로운 사학의 확대 등과 관련된 '조장적 관점'과 분규·문제 사학의 퇴출과 같은 '통제적 관점'이 모두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학에 대한 관점은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교육기관의 '책임성'과 이를 위한 '학교 역량 구축'이라는 기준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사학 | 사립대학 | 자율형사립고 | 책임성 | 신문 사설 |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related to private schools and present the implication for policy about private school, network text analysis about newspaper editorials i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media was conducte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newspaper editorials, there were many issues about private university and there was a distinction between private elementary · secondary school and private university. Second, in newspaper editorials, 'encouraging perspective' such as financial assistance and new private school like self-governing private high school and 'controlling perspective' such as withdrawal of problem private schools were both appeared. As a result, this study presents that the perspective for private schools needs to be re-established by 'accountability' as the educational institution and 'school capacity building' away from the past frame.

■ keyword : | Private School | Private University | Self-governing Private High School | Accountability | Newspaper Editorials | Network Text Analysis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사회에서 '사립학교'는 양면성을 가진 존재다. 공

교육의 중요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부정부패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사립학교의 '자주성'보다는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조성'

\*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 (2014)에서 연구자가 집필한 부분을 논문 형태로 새롭게 재구성하였음

접수일자 : 2014년 11월 28일

수정일자 : 2015년 02월 16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3월 11일

교신저자 : 박수정, e-mail : edupark37@gmail.com

보다는 ‘통제’ 중심의 감독 체제를 기조로 하고 있다[1].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관한 문제는 특히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촉발되어 2007년 사립학교법 재개정으로 일단락되었으나, 2013년에도 사립학교법 위헌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에서 사립학교(이하 ‘사학’과 혼용)는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가? 사립학교에 대한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연구는 사립학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사립학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2007년에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된 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언론에 나타난 사학 관련 현상과 대책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 신문사의 사학 관련 사설의 내용에 대하여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network text analysis)을 실시하고자 한다.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은 텍스트에 출현하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링크로 표시함으로써 구축되는 네트워크를 통해 현상을 해석하는 분석 기법으로, 언어와 지식은 단어 사이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라는 인식에 근거한다[2]. 즉,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은 사회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과 텍스트 분석(text analysis)을 복합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특정 연구 분야 및 현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시도다. 최근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여 특정 학문 분야의 연구 경향[3][4]을 분석하거나, 교육감 선거[5]와 지방교육 거버넌스의 특성[6],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경향[7]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신문기사를 통한 네트워크 분석은 신문사의 성향에 따라 차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언론과 진보적인 언론을 대비하는 경우가 많다[5][8]. 이 연구 또한 사립학교에 대한 시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사립학교와 관련하여 신문 사설에는 어떠한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는가?

둘째, 사립학교와 관련하여 신문사설 내용에 주요어

간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이러한 주요어 빈도와 주요어 관계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에서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연구는 신문 사설에 나타난 사학 관련 주요어와 사학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작업으로, 사학 관련 현상을 이해하고 사학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II. 사립학교와 사학정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국·공립 학교와 함께, 사립학교는 한국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한국의 사립학교는 광복 후 부족한 정부 재원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취학을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고등교육의 보편화도 사립학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9]. 이러한 과정에서 사립 중등학교의 경우, 학교 경비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운영되어 왔고, 따라서 교육정책의 통제를 강하게 받아왔다는 점이 외국과 다른 점이다.

사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사학의 높은 비율은, 사학의 운영에 있어서 건학이념과 자율성보다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학에 대하여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게 했고, 사학 또한 차별적인 특색을 갖지 못하고 운영되어 온 측면도 있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중등 사학은 2000년대 들어서 자립형사립고 제도가 최초이며, 현재 자율형사립고 제도로 이어오고 있다.

사학에 대한 법률은, 광복 후에는 주로 민법, 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을 받아 오다가, 1961년 군사정부가 제정한 교육에 대한 임시특례법에 이어, 1963년에 사립학교법이 제정되었다. 사립학교법 제정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하는 균형조화의 원리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10]. 이러한 사립학교법은 2005년 12월 29일자로 공포된 제35차 개

정 법률이 커다란 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개방형 이사제, 공채에 의한 교원 선발, 학교장 임기제, 학교장 임명시 친인척 배제, 비리 임원의 복귀 제한 등 주요 내용들은 대부분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여려는 움직임이었고,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었다[11]. 그러나 관련 집단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여 2007년에 다시 개정되었고, 그 후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의 이유는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공적 영역과 사립학교 설립법인의 교육이념 및 재산권이라는 사적 영역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10]. 당시 신문기사의 태도는 심층적인 본질보다는 정치적 갈등과 이념적 갈등 그리고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되지 않는 갈등이 지나치게 부각되었고[10], 사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더욱 강화되었다.

사학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사학 정책은 자유방임기(1945~1960년), 통제기(1961~1980년), 통제·조성기(1980년대), 조성·자율기(1990년대), 신통제기(2003~2007년)를 거쳐, 현재 자율적 통제기(2008년~현재)로 분류하고 있다[12]. 대체로 ‘통제’와 ‘조성’이 가장 대표적인 사학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공성과 자주성 중 어느 가치를 중시하는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며, 이 연구에서는 이를 ‘통제적 관점’과 ‘조장적 관점’으로 칭하도록 한다.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주성은 어느 하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달성해야 할 가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사학을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경우 공공성을, 육성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경우 자주성을 강조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학에 있어서 초·중등학교와 대학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학을 하나로 취급하는 정책과 관점도 특징적이다.

### III. 연구 대상 및 방법

####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사립학교와 관련된 신문사를 4군데 선정하였다. 즉,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

문을 선정하였는데, 이 신문사들은 발행 부수가 많고,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을 가진 대표적인 신문사들이다. 또한 신문기사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 가장 자주 선정되는 대표적인 신문사이기도 하다[5][8][13].

신문사 중에서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은 한국언론재단에서 운영하는 뉴스 검색사이트인 카인즈(www.kinds.or.kr)에서 사설을 검색하여 선별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신문사의 홈페이지 및 네이버 뉴스의 신문 게재 기사 검색을 함께 활용하여 신문기사에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한 후 분석 대상 사설을 선별하였다. 조선일보는 카인즈에서 제공하지 않는 관계로 조선일보 DB(http://db.chosun.com/history/)에서 검색하여 분석 대상 사설을 선별하였다.

검색어는 ‘사립’, ‘사학’을 활용하여 신문 사설을 선별하였다. 기사가 누락되거나 검색상 오류가 있음을 고려하여 추가로 ‘사립대’, ‘사립고’, ‘사립중’, ‘사립초’를 검색어로 다시 한 번 검색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추가로 거쳐 누락되는 사설이 없도록 하였다. 조선일보 DB에서 검색할 때에는 여러 기사가 함께 섞여서 필터링 되는 것을 고려하여 ‘사립’, ‘사학’을 먼저 검색하고, 페이지 검색(Ctrl+F) 기능을 활용하여 ‘사설’을 검색하여 ‘사립’, ‘사학’ 기사 중 ‘사설’을 선별하였다. 또한, ‘사학’ 검색의 경우 私學이 아닌 史學 관련 기사들도 함께 검색되어, 史學 관련 기사들을 제외하여 선별하였다.

이러한 검색 결과 연도별로 신문 사설의 빈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사학 관련 사설은 모두 334편으로, 조선일보가 118편, 한겨레신문이 117편, 동아일보는 108편, 경향신문이 107편으로 나타났다. 분석 시기를 2008년부터로 한 것은, 2005년에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고 2007년 재개정되어 과거의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재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일단락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표 1. 분석 대상 신문 사설 (2008. 1 ~ 2013. 8)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경향신문	19	11	33	28	8	8	107
동아일보	20	22	27	18	12	10	109
조선일보	19	15	29	22	23	10	118
한겨레신문	21	23	36	27	7	3	117
합계	79	71	125	95	50	31	451

\*2013년은 8월 31일까지임

## 2. 분석 과정 및 방법

사설 내용 중 사학 관련어가 나타난 문장을 추출하기 위하여 특정어 검색을 하였다. '사립학교' 외에도 '자율형사립고', '자율고', '사학'(역사학계 제외), '사립', '사분위'(사학분쟁조정위원회), '법인'(국립대 법인화, 회계법인, 법인세, 법인카드 제외), '재단'(한국장학재단, 아름다운재단 제외), '학원'(사립 관련 학원, 사설 학원, 대학원 제외) 등을 검색하고 내용을 확인하여 문장을 추출하였다.

사설 내용에 나타난 주요어의 빈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띄어쓰기를 통일하고, 명사와 조사를 띄우며, 복수형을 단수형으로 통일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단어를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예컨대 '사학'은 '사립학교', '자사교'는 '자율형사립고', '사분위'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 더 많이 사용되거나 분명한 용어로 수정하였다.

몇 차례의 데이터클리닝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kirkwic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최종적인 주요어 빈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빈도 수가 많은 주요어를 선정하고, 주요어와 주요어의 관계를 Netminer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어떤 단어(여기에서는 키워드)가 다른 단어와 동시에 출현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중심성'의 개념은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등이 있다[14]. 여기에서는 한 노드에 직접 연결된 노드의 수를 의미하는 연결 중심성-그 중 내향 중심성(in-degree centrality)-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구조적 동위성(structural equivalence)은 전체 네트워크 활동에서 지위에 따라 동일한 역할을 하는 단어들을 묶어주는 개념[14]으로, 핵심 주요어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활용되었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신문 사설에 나타난 주요어 빈도 분석

#### 가. 사설 내용(전체)에 나타난 주요어

분석 대상 전체 신문 사설의 내용에서 14회 이상 나타난 주요어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가장 많이 언급된 주요어는 '사립대학', 두 번째는 '자율형사립고'였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학', '재단', '대학', '등록금', '학교', '자율고', '학생', '정부', '교육부'의 순으로 많은 빈도를 나타냈다.

#### 나. 사설 내용(보수/진보)에 나타난 주요어

분석 대상 중 보수 성향의 신문 사설의 내용에서 11회 이상 나타난 82개 주요어개와 진보 성향의 신문 사설의 내용에서 11회 이상 나타난 88개 주요어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보수 성향의 신문 사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주요어는 '사립대학', 두 번째는 '자율형사립고'였고, '대학', '등록금', '학교', '자율고', '사학', '학생', '교육부', '정부', '사립학교법', '재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보 성향의 신문 사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주요어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두 번째는 '사립대학'이었고, '재단', '자율형사립고', '사학', '등록금', '대학', '비리', '비리재단', '상지대', '학교', '정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사학 관련 신문 사설(전체)에 나타난 주요어

순위	빈도	주요어	순위	빈도	주요어
1	288	사립대학	32	32	같은, 일부
2	226	자율형사립고	33	31	감사, 사대, 정책
3	183	사학분쟁조정위원회	34	30	국공립대학, 돈, 설립자, 일반고
4	181	사학	35	29	교수, 사립, 선임, 신입생, 입시, 전국, 총장, 후보
5	172	재단	36	28	사립고, 설립, 수준, 주장
6	165	대학	37	27	결과, 사실, 적립금, 정이사, 특목고, 확대
7	164	등록금	38	26	교과, 국회
8	143	학교	39	25	방안, 이유
9	118	자율고, 학생	40	24	교장, 재정, 정원, 퇴출, 필요
10	110	정부	41	23	국립대학, 분규, 예산, 인사, 정상화, 평준화, 학교법인
11	103	교육부	42	22	개혁, 도입, 사립초, 요구, 위원, 한나라당
12	88	비리	43	21	감찰, 김승환, 입학
13	72	비리재단	44	20	남성고, 의혹, 전교조
14	68	상지대			
15	67	결정, 사학재단			
16	65	사립학교법			
17	64	문제			

18	59	교육	45	19	공공성, 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성적, 재산, 지역, 해결
19	56	교사			
20	54	지원	46	18	권한, 기부금, 기준, 분쟁, 장학금, 전체, 제도, 횡령
21	53	운영			
22	48	지정	48	17	대상, 선발, 자율, 자율성, 쫓겨난, 평균, 학원
23	46	이사장			
24	42	학부모	49	16	구조조정, 반대, 법인, 부담, 이사회, 인상, 정권, 책임
25	41	교육감, 외교, 전입금			
26	39	서울	50	15	교비, 교육당국, 명문, 사회적, 전형, 절반, 추진, 추천, 출신
27	38	이사			

표 3. 사학 관련 신문 사설(보수, 진보언론)에 나타난 주요어

빈도	보수 언론(동아, 조선)	순위	진보 언론(경향, 한겨레)	빈도
143	사립대학	1	사학분쟁조정위원회	169
116	자율형사립고	2	사립대학	145
82	대학	3	재단	134
80	등록금	4	자율형사립고	111
78	학교	5	사학	105
77	자율고	6	등록금	84
76	사학	7	대학	83
71	학생	8	비리	75
48	교육부, 정부	9	비리재단	72
38	사립학교법, 재단	10	상지대	66
37	지정	11	학교	65
36	외교	12	정부	62
33	교육감, 지원	13	교육부	55
31	교육, 미국, 자립형사립고	14	결정	51
30	교사	15	사학재단	51
25	서울	16	문제	48
24	학부모	17	학생	47
23	사립고, 의원, 전환	18	자율고	41
22	취소	19	복귀	36
21	사립, 수준	20	전입금	35
20	김승환, 운영, 총장	21	운영	33
19	교수, 남성고, 설립, 신입생, 전국	22	이사장	32
18	고교, 국립대학, 일반고	23	사학비리, 이사	31
17	예산, 입사, 정원	24	교육	28
16	결정, 문제, 사학재단, 일부, 전교조	25	사립학교법	27
15	국공립대학, 때문, 사립초, 이유	26	교사, 정이사	26
14	돈,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이사장, 재정, 퇴출	27	사태, 선임	25
13	교장, 구조조정, 비리, 중앙고, 평준화, 후보	28	결과	23
12	감사, 공립학교, 공무원, 국회, 대상, 설립자, 입학, 장학금, 지역, 추천, 출신	29	분규, 적립금, 정상화, 정책, 지원	21
11	강성종, 검찰, 모두, 위헌, 재산, 전체, 주장, 필요	30	사실	20

다. 논의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에서 비슷한 빈도로 언급된 주요어는 ‘사립대학’, ‘자율형사립고’, ‘대학’, ‘등록금’, ‘교육’, ‘교사’ 등으로, 이에 대하여 공통된 관심사를 보여 주고 있다.

반면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에서 많이 언급된 주요어의 양상은 차이가 있었다. 보수 언론에서는 ‘외교’, ‘교육감’, ‘미국’, ‘자립형사립고’가, 진보 언론에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비리’, ‘비리재단’, ‘상지대’, ‘사학재단’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진보 언론에서 169회, 보수 언론에서 14회로 대단히 큰 편차를 보였다.

사학 관련 사설에 나타난 주요어를 분류하여 살펴보면, 사학은 공립학교와 대비되어 논의되고,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이 구별되고 있으며, 또한 사립고와 사립초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신문 사설에는 문제 사학에 대한 기사와 사학의 공공성 또는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책에 대한 기사, 사학과 공학의 공통된 주제, 예컨대 등록금과 구조조정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2. 사설 내용에 나타난 주요어 간 관계 분석

가. 사설 내용(전체)에 나타난 주요어 간 관계

사학 관련 사설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주요어를 추출하여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키워드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의미 있는 현상과 경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주요어는 신문 사설에서 20회 이상 나타난 단어(총 94개)로 하였다. 주요어의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분석하여 그것이 상대적으로 낮은(0.32 이하) 주요어를 9개 제거하고, 나머지 85개 주요어를 ‘핵심 주요어’로 하여 연결 중심성을 다시 분석하였다. ‘교육’의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은 가운데 ‘학교’, ‘사학’, ‘대학’, ‘정부’, ‘교육부’, ‘지원’, ‘운영’ 등이 높은 연결 중심성을 보이고 있다. 즉 이 용어들이 사학과 관련하여 다른 용어와 함께 자주 출현하는 용어들이다.

85개 핵심 주요어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의 지도를 시각화하면 [그림 1]과 같다. 핵심 주요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적 동위성(structural equivalence) 분

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주요어들이 [표 4]와 같이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사실 내용(보수/진보)에 나타난 주요어 간 관계 한편, 언론의 성향에 따라 어떠한 결과를 보이는지

분석해보았다. 조선, 동아는 상위 빈도의 82개 주요어, 경향, 한겨레는 상위 빈도의 87개 주요어를 핵심 주요어로 하여 분석한 결과, 네트워크 지도는 [그림 2][그림 3]과 같다. 핵심 주요어 간의 구조적 등위성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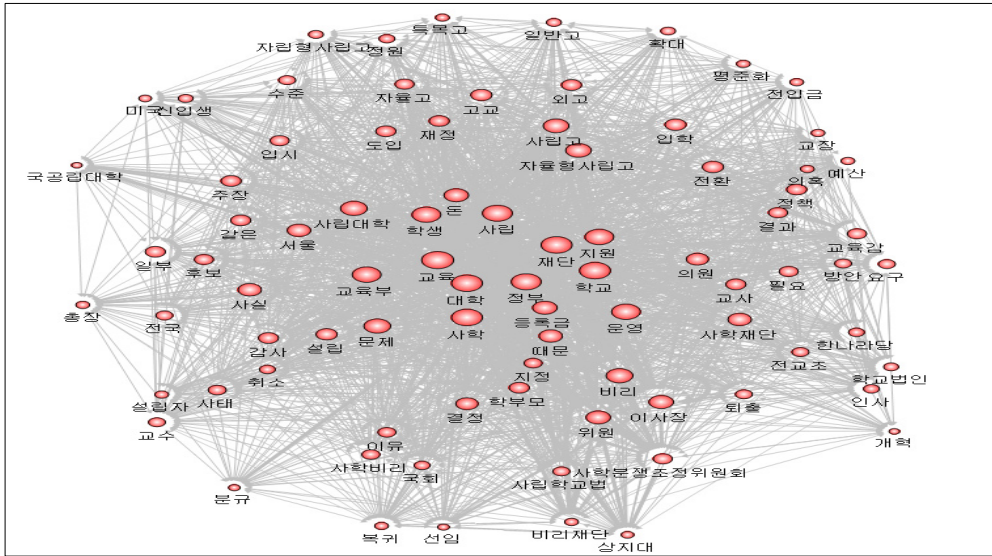


그림 1. 핵심 주요어 간 네트워크 지도(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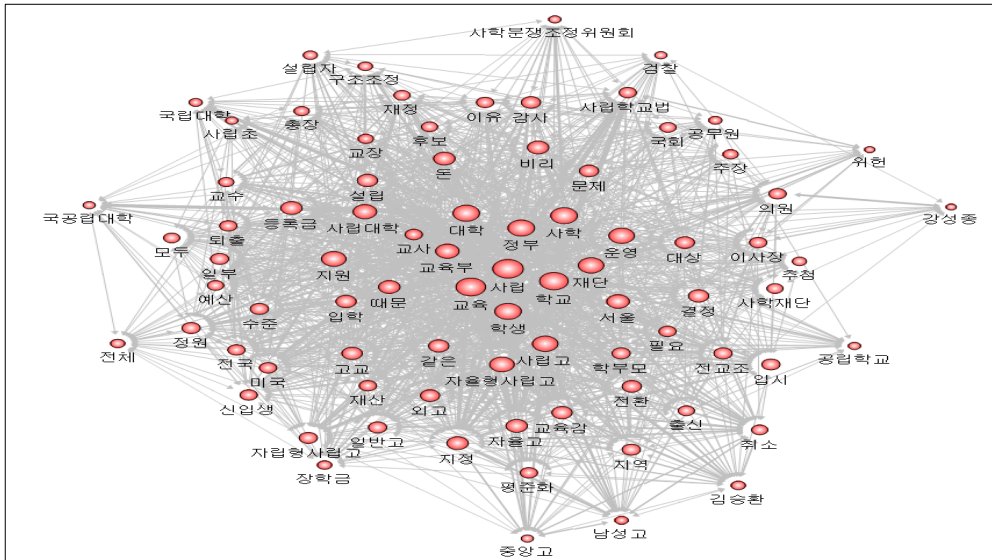


그림 2. 핵심 주요어 간 네트워크 지도(보수 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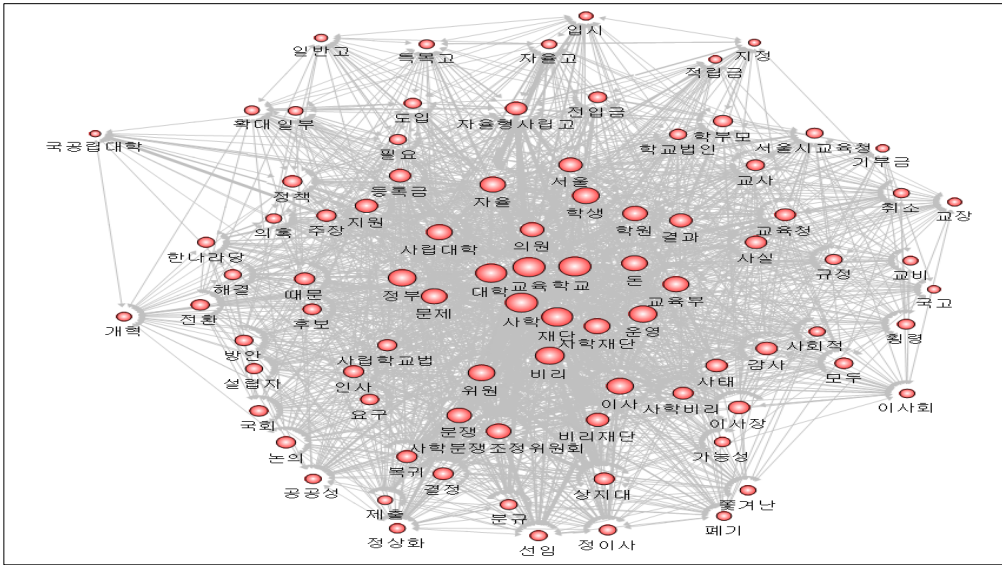


그림 3. 핵심 주요어 간 네트워크 지도(진보언론)

표 4. 구조적 등위성 분석 결과(전체)

4수준	3수준	2수준	1수준	주요어
1	1	1	1	사립대학, 등락금, 지원, 전입금, 미국, 일본, 국공립대학, 사립, 수준, 재정, 예산, 학교법인, 요구
			2	대학, 학생, 정부, 사립학교법, 때문, 신입생, 전국, 주장, 결과, 방안, 지원, 필요, 한나라당, 입학
		2	3	자율형사립고, 학교, 교육, 지정, 외교, 지립형사립고, 전환, 정책, 일반고, 입시, 사실, 특목고, 확대, 고교, 평준화, 도입
			4	자율고, 교육부, 교사, 학부모, 교육감, 서울, 취소, 같은, 사립고, 설립, 교장, 전교조
	2	3	5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학, 상지대, 결정, 사태, 교수, 국회, 이유, 분규, 인사
			6	재단, 비리, 문제, 복귀, 사학비리, 퇴출, 개혁, 위원
		4	7	비리재단, 사학재단, 운영, 이사장, 감사, 설립자, 선임, 후보, 의혹
			8	의원, 돈, 총장

표 5. 구조적 등위성 분석 결과(보수, 진보언론)

4수준	3수준	2수준	1수준	보수 언론(동아, 조선)	진보 언론(경향, 한겨레)
1	1	1	1	사립대학, 등락금, 사학, 교육부, 재단, 미국, 사립, 총장, 교수, 국립대학, 예산, 국공립대학, 돈, 재정, 퇴출, 구조조정, 감사, 설립자, 재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재단, 사학, 비리, 상지대, 결정, 문제, 복귀, 이사, 교육, 정이사, 사태, 분규, 정상화, 사실, 공공성, 인사, 개혁, 위원, 해결, 분쟁, 한나라당, 방안, 필요, 가능성, 사회적
			2	대학, 학생, 정부, 지원, 수준, 운영, 전국, 정원, 문제, 일부, 때문, 이유, 대상, 입학, 장학금, 모두, 전체, 주장, 필요	교육부, 사립학교법, 선임, 국회, 의원, 논의, 요구, 제출, 폐기
		2	3	비리, 공무원, 국회, 강성중	비리재단, 사학재단, 운영, 감사, 설립자, 후보, 의혹, 횡령, 교육청, 교장, 국고, 모두
			4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후보	이사장, 사학비리, 때문, 꽃겨란, 돈, 교비, 이사회
	2	3	5	자율형사립고, 외교, 교육, 지립형사립고, 서울, 전환, 설립, 신입생, 고교, 일반고, 평준화, 지역, 추천, 출신	사립대학, 등락금, 전입금, 적립금, 지원, 일부, 국공립대학, 학교법인, 서울, 기부금, 규정
			6	학교, 자율고, 지정, 교육감, 사립고, 취소, 김승환, 남성고, 입시, 전교조, 중앙고	대학
		4	7	사립학교법, 교사, 같은, 의원, 결정, 이사장, 위원	자율형사립고, 학교, 정부, 학생, 자율고, 결과, 정책, 확대, 학부모, 주장, 특목고, 도입, 자율, 학원, 일반고, 입시, 전환, 지정
			8	학부모, 사학재단, 사립초, 교장, 공립학교, 검찰	교사, 서울시교육청, 취소

#### 다. 논의

전체적으로 볼 때, ‘사립대학’~‘등록금’~‘재정’~‘지원’, ‘자율형사립고’~‘학교’~‘지정’~‘확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학’~‘분규’, ‘재단’~‘비리’~‘문제’ 등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립학교와 관련된 현상을 바라보는 언론의 이해와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

즉, 사립대학은 등록금과 재정 등과 관련된 이슈가 크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자율형사립고는 학교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지정과 확대 논란이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학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관으로 분규를 다루며, 재단의 비리가 사학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보수 언론의 경우, 사립학교법의 위헌 소지, 자율고의 지정과 취소에 전교조가 관여되고 있다는 인식을 보이며, 진보 언론의 경우는 자율형사립고와 자율, 사학분쟁위원회와 사학의 정상화와 공공성을 연결하여 논의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에 있어서 보수 언론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를 했던 전복을, 진보 언론은 자율형사립고 지원 미달 사태를 보인 서울을 주목하는 차이를 보여 찬성과 반대 입장에 따라 다른 관심사를 보여주고 있다. 사립대학과 관련하여 보수 언론은 구조조정을, 진보 언론은 기부금을 연관하여 논의하는 등 역시 관심의 차이를 보인다.

언론에서는 ‘사학’에 대하여 사립대학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가장 대표적으로 연관 지어 보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사학 관련 논의가 초중등학교 외에 ‘대학’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분규 사학에 대한 심의를 위해 설치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관심은 사학에 대한 부정적, 통제적 인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신문 사설에서는 주로 사건, 사고와 사회적 이슈와 문제가 부각될 때 그러한 사건과 주장을 다루기 때문에 사학에 대하여 부정적인 관점을 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 해석상 주의해야 할 것이다.

#### V. 결론

이 연구는 신문 사설에 대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사학 관련 주요어와 주요어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 사설에서 사학은 사립대학과 관련된 이슈가 많고, 사립의 초·중등학교와 사립대학 간에 구별되는 쟁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은 대학과 초·중등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사학 정책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것은 사학 관련 이슈를 분리하여 학교급을 구분하여 사고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사립대학의 자율성은 사학의 자율성과 다소 차이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데,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사학 건학이념의 존중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15].

또한 자율형사립고에서 대두된 사립고의 자율성 문제는 앞으로 새롭게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는 공·사립 공히 공교육의 틀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고등학교에 대한 접근은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신문 사설에서 등록금과 재정 지원, 자율형사립고와 같은 새로운 사학의 확대 등과 관련된 ‘조장적 관점’과 분규·문제 사학의 퇴출과 같은 ‘통제적 관점’이 모두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사학은 문제가 많은 학교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부 사학의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사학이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보편화에 기여하고, 교육기회와 취학률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등 한국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바는 거의 문혀 있다.

학교교육의 발전에 있어서 공학과 사학의 구별은 의미가 없다. 사학의 강점을 키우고 확산하며, 우수사학을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조장적 관점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단 문제 사학에 대해서는 통제적 관점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사학의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지금까지는, 공교육을 분담하는 사학의 공공성에 자주성보다 좀 더 가치를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 외에, 교육의 책무성(accountability)이 중요하게 부각되



고 있고, 학교 자율화가 추진되고 있는 정책 환경의 변화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16].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사학 또한 ‘교육의 질 제고’라는 목표와 이를 위한 ‘학교 역량 구축(school capacity building)이라는 정책적 지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종래의 사학에 대한 관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신문 사설에 나타난 사립학교 주요어에 대하여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사학 관련 현상을 이해하고 사학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신문 사설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사건 중심의 부정적인 보도 태도와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상의 제한점 등을 한계로 볼 수 있다. 추후 풍부한 논의와 분석을 위하여 신문 사설에 대한 내용 분석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인의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SNS 자료를 분석하는 빅 데이터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도 의미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박민, 이시우,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율성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9권, 제3호, pp.143-168, 2011.

[2] J. F. Sowa, *Conceptual Structures: Information Processing in Mind and Machine*, MA: Addison-Wesley, 1984.

[3] 박수정, 박선주, 박진영, “지방교육자치 연구동향 분석(1991~2010)”, 교육행정학연구, 제29권, 제2호, pp.261-288, 2011.

[4] 박수정, “한국 중등교사 양성교육 연구 경향 분석”, 교육학연구, 제52권, 제3호, pp.1-28, 2014.

[5] 박수정, “교육감 선거 관련 신문사설에 대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제18권, 제2호, pp.183-203, 2011.

[6] 박수정, 박선주, “지방교육 거버넌스의 특성: 교육감 관련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제20권, 제2호, pp.129-155, 2013.

[7] 최호택, 류상일, 정석환, 이민규, “지방자치단체장

의 주요정책 경향분석(I)”,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pp.661-671, 2012.

[8] 박은주, 박수정, “학교폭력에 대한 신문사설 분석”, 교육연구논총, 제35권, 제1호, pp.1-30, 2014.

[9] 이종재, 김성열, 돈 애덤스, *한국교육 60년*,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10] 김병주, 김은아, 홍준영,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신문의 보도태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제24권, 제4호, pp.363-387, 2006.

[11] 이상철, “사립학교법 개정과정과 주요내용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제24권, 제1호, pp.197-223, 2006.

[12] 구건백, “한국사학정책의 변천동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18권, 제1호, pp.7-37, 2011.

[13] 이원섭, “국내 신문의 사외칼럼과 사설 논조의 상관관계 분석”, 언론과학연구, 제10권, 제2호, pp.421-469, 2010.

[14] 김용학, *사회연결망 분석*, 박영사, 2011.

[15] 조석훈, “사립학교의 책무성: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 교육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pp.257-281, 2004.

[16] 박수정, 권순형, “시스템 사고에 의한 학교 자율화 정책 분석”,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제15권, 제1호, pp.5-27, 2014.

저 자 소 개

박수정(Soo Jung Park)

정희원



- 2008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0년 8월 ~ 현재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교육정책, 교원 전문성 개발, 학교 변화, 팀 학습, 교육행정사